

# 쌀, 올해도 15만t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우려

농촌경제연구원 쌀 수급 전망  
정부, 재배 면적 감축 실패  
변동직불금 크게 늘어날 듯



올해 쌀 과잉 생산량이 최대 15만t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해마다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생산량이 감축되지 않는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17년 쌀 수급전망치와 파종기 과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 전망치는 395만t으로 신곡 예상수요량 380만~385만t에 비해 10만~15만t 초과 공급이 우려된다. 이 수치는 최근 마무리된 벼재배 의향면

적 조사를 통해 유추됐다. 지난 3월부터 3차례 걸친 농가 벼재배 의향면적조사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정부감축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올 벼재배 의향면적은 75만6000ha로 정부 감축 목표치인 74만4000ha에 비해 1만2000ha 많은 수준이었다. 흔히 농가는 연초에 짝 영농계획에 따라 벼 재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3~4

월이 실시하는 농가 재배의향면적 조사가 쌀 수확량을 예측하는 가장 신뢰 높은 결과로 알려져 있다. 날씨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파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아 신뢰도가 높다. 실제 지난 2011년~2016년 농가 재배 의향조사와 통계청 확정치의 차이는 0.2~1.2%에 불과했다. 정부가 균형적인 쌀 수급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지만 실제 벼를 심는 면적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쌀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2% 줄어들고

있는 반면, 쌀 소비량은 연평균 2.6% 감소했다. 이 때문에 쌀값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고 변동직불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이 12만9711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이 지급한도인 13조4000억원에 달했고, 2005년 변동직불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15년산 지급액(7257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t 가량 과잉 공급된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29만t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가전 전력관리 한전-삼성, 공동 기술 개발·시범 적용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삼성전자(윤부근 사장)는 27일 삼성전자 본사에서 스마트가전을 활용한 피크관리 시범 사업 및 에너지 IoT 협력 사업모델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먼저 산업부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가전 KS표준을 활용해 전력 피크 관리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와 에어컨을 개발하고, 무선통신을 이용해 피크전력 시간대에 자동으로 전력소비를 감축시키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수도권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력의 냉장고와 에어컨의 50%에 피

크관리 기능이 적용되면, 소비 전력 8% 감축시 최대부하 100만kW를 감축시킬 수 있는 규모다. 전국 냉장고는 1794만대, 에어컨은 1346만대 보급됐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는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스마트가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IoT 연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요금 절감과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며, 실시간 이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빅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과 삼성전자는 양사의 강점을 융합한 신사업모델로 해외 동반진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희기자 lion@



## 호남농토 적시는 백파제...풍년 기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지난 26일 정읍시 낙양 취입수문에서 풍년농사와 안전영농을 기원하는 백파제(통수식)를 했다. 이날 공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수질개선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어촌 생태환경개선을 지원 하는 등 농어촌용수의 양과 질을 동시에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3394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81.5%로 평년대비 양 호한 수준이나, 경기 충남 일부 지역 저수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나 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통한 용수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에 따르면 전남지역 저수율은 71.7%로 평년대비 91%를 나타내며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날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에서는 김형용 부사장과 임직원, 농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표 통수식을 개최했다. /오광목기자 kroh@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54개 업체에 신기술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는 최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5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신기술신공법 기술설명회를 열었다. 신기술신공법설명회는 신기술 신공법의 이해와 특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최적 공법선정을 통한 설계품질 향상과 기술장벽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허 75건을 소개하고, 참석한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련담당자 100여명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균 본부장은 "매년 신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특성에 맞는 최적 공법선정으로 설계품질을 향상하고 있다"며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공연 신예들, 콘텐츠진흥원 무대서 끼 펼쳐라



실리카벨



재주소년

### CKL스태이지 공연 다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이 운영하는 CKL스태이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42편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3~4월 실시했던 '2017 정기·수시CKL스태이지 기획대안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34개 공연단체의 작품들로 콘진원이 대관료와 시설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CKL스태이지는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지하 1층에 있는 한류·융복합·창작 전문 공연장이다. 5월 1일의 첫 무대는 한엔터테인먼트의 뮤지컬 리딩 쇼케이스 'H프로젝트 창작극다'가 장식한다. 극단 걸판의 '엔ANNE', 김수진 작곡가의 '굿모닝포커피', 정찬수 작가의 '어비스 Abyss:심연' 등 창작 작품 세 편이 무대에 오른다. 음악 공연으로는 흥대에서 활동 중인 인

디 뮤지션 오조의 단독 공연과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라게 룬드의 단독 콘서트, 한문진의 신인 뮤지션 발굴·육성 프로젝트인 'K-루키즈'에서 2016년 대상을 받은 실리카벨의 단독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밖에 신인 및 인기 합창·아이돌 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Collaboration K-POP Concert'를 비롯해 치즈, 재주소년, 토마스 쿡&주윤하, 이영훈, 손예복 등의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우수 창작 공연으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와 '인셉션'을 모티브로 표현하는 연극인 '사다리울지않은연구'의 레파토리 공연 '크리스토퍼 놀란클럽'이 재공연된다. '서울예술단'의 2017년 신작 '군바이, 이상(가제)', 부산의 대표적 한류 공연 콘텐츠인 '뮤지컬 컴퍼니 까리프로젝트'의 년별 뮤지컬 '몽키댄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LDP무용단의 2014년 정기 공연작인 'No Film'도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의 작품으로 CKL스태이지에서 다

시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밀란 콘데라의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유장현과 친구들'의 '농담', 2017 아르고 창작산실 우수작품 레파토리 현대무용 부문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소무', 연극 부문 '극단907'의 '초인종', '극단 문'의 '브레인 콘트롤', '공연창작연구소 이슬길'의 '이불-피어나는 봄', '마제스티 시어터 랩'의 '다원예술 음악극 훈', '플레이그 룰 잼잼'의 '하늘로 간 청춘팔' 등 젊고 패기 넘치는 예술인들의 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순 펼쳐지는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2017'는 CKL스태이지를 통해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해외 초청작과 한국-해외 공동제작 공연들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venture.ck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02-6441-3951)도 가능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 의료·금융 클라우드 보안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클라우드 보안 지원사업'의 5개 과제를 선정해 연말까지 7개 의료기관, 2개 금융회사, 6개 중소기업에 시범적용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의료, 금융분야 클라우드 보안실증 사례와 신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의료, 금융 관련 클라우드 보안실증 분야 선정과제로는 의료기관용 의료정보서비스 구축(2건), 금융상담·자문용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구축(1건)이 선정됐다.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개발 분야 선정과제로는 문서보안, 접근제어가 각 1건씩 선정됐다. KISA는 이번 클라우드 보안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금융, 의료 분야에도 클라우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검증 등 기술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완석 KISA 인프라보호단장은 "클라우드 보안실증 및 보안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박공장리  
Step 2. 단열벽이식작업  
Step 3. 외벽외벽이식작업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나보세요

5분 이상 물로 가압해도 물이 새도록 하고  
안저 물이 새는 실험 동영상 견적

실제 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인이 난 엔지니어와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 내열성    6년 무상 A/S

중로문화센터 옥상방수    시공사례    상명대학교/영광군보문초/대전대학교/태백시보문초/당성시보문초/진안/강화/진안/제천/부천소방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대리점 010-6603-040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